

인터넷 윤리의식 자가진단 검사 결과

추 병 완
(춘천교육대학교)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인터넷 윤리의식 자가진단 검사 결과 |
| 2. 인터넷 윤리의식 자가진단 검사 도구 개발 과정 | |

1. 머리말

인터넷 역기능을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윤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찍이 레식(Lessig)은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기제로서 법·규범·시장·암호를 제시하였다.¹⁾ 스피넬로(Spinello)는 레식의 틀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고 규제하는데 있어서 윤리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는 도덕적 선이 암호·법·시장·사회 규범 등이 그 규제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 즉, 인간 번영(human flourishing)

이라는 궁극 가치는 현실 공간에서는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도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내려지는 궁극적인 제약이 된다는 것이다. 도덕성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든 활동과 경계를 정하는 궁극적인 규제자가 되어야 한다. 법·암호·시장·사회 규범이 가지는 힘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호작용과 거래가 온건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 되도록 도덕성을 중심으로 정향·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인터넷 역기능을 해소하면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창출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성원들이 확고한 인터넷 윤리의식을 지녀야 한다. 인터넷 윤리의식이란 인터넷 이용자들이 갖추어야 할 윤리적 가치관과 행동양식

1) 이태진·노병철 공역, 『사이버윤리』, (고양: 인간사랑, 2001), p. 31에서 재인용함.

2) 위의 책, p. 37.

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터넷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우리는 인터넷윤리교육을 강화시켜 왔다. 그러나 인터넷 윤리교육이 이용자의 인터넷 윤리의식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이 아니라 획일적이기에 이용자들의 학습 동기를 제대로 유발하지 못했다. 또한 인터넷 윤리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개발되었으나 대부분 연구의 목적에서 수행된 것이지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가진단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일반 이용자들이 자신의 인터넷 윤리의식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에 이 연구는 인터넷 윤리의식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대학생용으로 구분하

여 각각 개발하고 그 실효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2. 인터넷 윤리의식 자가진단 검사 도구 개발 과정

가. 인터넷 윤리의식의 구성 요소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윤리의식의 구성 요소를 자율, 존중, 책임, 참여로 설정하였다.

〈표 1〉 인터넷 윤리의식의 4 구성 요소에 대한 조작적 정의

개념	조작적 정의
자율	자신의 내적 법칙에 근거해서 자기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의미함과 동시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옳음과 그름, 좋고 나쁨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존중	자기 자신과 타인을 높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개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동시에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인정하고 예우함으로써 타인도 자기 자신과 똑같은 존엄성을 갖는 인격체로 보려는 태도를 말한다.
책임	개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생각하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말한다.
참여	주체적 정보 이용자로서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능동적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문항 개발 과정

인터넷 윤리의식을 자기진단 하기 위한 검사 문항을 제작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분석 및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성인용 인터넷 윤리의식 조사를

위한 문항을 1차 초등 48개, 중·고등 49개, 대학생 및 성인용 58개의 문항을 이분법(예, 아니오)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분법적 척도로는 원하는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어려워 5단계 척도로 수정하여 4차례에 걸친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후 본조사 실시를 위한 최종 검사 문항으로 초등 22문항, 중고등 24문항, 대학생용 24문항을 개발하였다.

다. 문항제외 기준

문항 제외 기준은 문항 제거시 신뢰도 계수가 높아지는 문항, 요인 부하량이 마이너스 및

.3미만인 것, 상관관계가 .4미만 인 것으로 하였으며, 요인 분석결과 요인이 2~3개에 걸쳐 비등하게 분산된 문항과, 내용타당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였다. 또한 4개 영역별 교차 분석을 통해 상관관계 및 공통성이 낮은 문항(.2 미만)도 삭제하였다.

라.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표 2〉 초등학생용 인터넷 윤리의식 자가진단 검사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지표	문항수 (22)	신뢰도(Cronbach' s α)계수	
		영역별	전체
자율	6	.815	.873
존중	6	.735	
참여	5	.753	
책임	5	.725	

〈표 31〉 중·고등학생용 인터넷 윤리의식 자가진단 검사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지표	문항수 (24)	신뢰도(Cronbach' s α)계수	
		영역별	전체
자율	6	.711	.663
존중	6	.754	
참여	6	.720	
책임	6	.635	

〈표 32〉 대학생용 인터넷 윤리의식 자가진단 검사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지표	문항수 (24)	신뢰도(Cronbach' s α)계수	
		영역별	전체
자율	6	.861	.773
존중	6	.720	
참여	6	.782	
책임	6	.610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초등학생용 .873, 중·고등학생용 .663, 대학생용 .773으로 나타나 자가진단을 위한 검사 문항이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인터넷 윤리의식을 자가 진단하기 위한 검사 문항들이 연구자가 지정한 하위 영역(추출 요인 수)별로 구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요인 수의 결정은 스크리 검정(Scree Test)를 통하여 확인하였는 바, 세 검사지 모두 4가지 하위 영역이 타당함을 입증하였다. 또한 인터넷 윤리의식을 진단하는 문항들이 연구에서 설정한 4개 영역으로 구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역별 추출 요인 수를 지정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유형 분석 방법

인터넷 윤리의식의 유형을 결정하기 위해

문항별 5점 척도에서 4점 이상인 경우를 '높음'으로 판정하였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경우 자율과 존중 의식은 24점, 책임과 참여 의식은 20점을 판정 기준으로 하였으며,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각 요소별로 24점을 판정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각 구성 요소를 '높음'과 '낮음'으로 구분함으로써,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윤리의식이 모두 16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가진단 검사 결과 피검사자들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3. 인터넷 윤리의식 자가진단 검사 결과

개발된 최종 검사 문항에 의거하여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지역의 초등학생 566명, 중·고등학생 566명, 대학생 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초등학생 유형별 결과

유형번호	자율	존중	참여	책임	인원수	퍼센트
1	↑	↑	↑	↑	68	12.01%
2	↑	↑	↑	↓	4	0.77%
3	↑	↑	↓	↑	97	17.14%
4	↑	↓	↑	↑	21	3.71%
5	↓	↑	↑	↑	10	1.77%
6	↑	↑	↓	↓	16	2.83%
7	↑	↓	↑	↓	4	0.77%
8	↑	↓	↓	↑	127	22.44%
9	↓	↑	↑	↓	3	0.53%
10	↓	↑	↓	↑	26	4.59%
11	↓	↓	↑	↑	7	1.24%
12	↑	↓	↓	↓	34	6.01%
13	↓	↑	↓	↓	7	1.24%
14	↓	↓	↑	↓	0	0%
15	↓	↓	↓	↑	65	11.49%
16	↓	↓	↓	↓	77	13.60%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자율과 책임 의식은 높으나 존중과 참여 의식이 낮은 8번째 유형이 2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 의식은 높으나 자율, 존중, 책임 의식이 낮은 14번째 유형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초등학생의 경우 12.01%만이 높은 인터넷 윤리의식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13.6%의 학생들은 인터넷 윤리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인터넷 윤리의식의 4 구성 요소 가운데 자율 의식이 가장 높은 반면에 참여 의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중·고등학생 유형별 결과

유형번호	자율성	존중	참여	책임	인원수	퍼센트
1	↑	↑	↑	↑	14	2.47%
2	↑	↑	↑	↓	0	0%
3	↑	↑	↓	↑	22	3.89%
4	↑	↓	↑	↑	1	0.18%
5	↓	↑	↑	↑	24	4.24%
6	↑	↑	↓	↓	6	1.06%
7	↑	↓	↑	↓	3	0.53%
8	↑	↓	↓	↑	54	9.54%
9	↓	↑	↑	↓	6	1.06%
10	↓	↑	↓	↑	56	9.89%
11	↓	↓	↑	↑	10	1.77%
12	↑	↓	↓	↓	27	4.77%
13	↓	↑	↓	↓	26	4.59%
14	↓	↓	↑	↓	11	1.94%
15	↓	↓	↓	↑	146	25.80%
16	↓	↓	↓	↓	160	28.27%

중·고등학생의 경우 28.27%의 학생들이 네 요소 모두 낮은 16번째 유형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네 요소 모두 높은 학생들은 2.47%에 불과하였다. 자율, 존중, 참여

의식은 높으나 책임 의식이 낮은 2번째의 유형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책임 의식이 가장 높은 반면에 참여 의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대학생 유형별 결과

유형번호	자율성	존중	참여	책임	인원수	퍼센트
1	↑	↑	↑	↑	3	0.58%
2	↑	↑	↑	↓	1	0.19%
3	↑	↑	↓	↑	27	5.24%
4	↑	↓	↑	↑	0	0%
5	↓	↑	↑	↑	4	0.78%
6	↑	↑	↓	↓	18	3.50%
7	↑	↓	↑	↓	0	0%
8	↑	↓	↓	↑	44	8.54%
9	↓	↑	↑	↓	8	1.55%
10	↓	↑	↓	↑	45	8.74%
11	↓	↓	↑	↑	2	0.39%
12	↑	↓	↓	↓	76	14.76%
13	↓	↑	↓	↓	58	11.26%
14	↓	↓	↑	↓	3	0.58%
15	↓	↓	↓	↑	37	7.18%
16	↓	↓	↓	↓	189	36.70%

대학생의 경우 네 요소 모두 낮은 16번째 유형이 36.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으며, 4번째 유형과 7번째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생의 경우 네 요소 모두 높은 학생이 0.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 책임 의식이 가장 높은 반면에 참여 의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학생들은 인터넷 윤리의식 가운데 참여 의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나 자료를 올리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에는 인터넷 카

페와 같은 사이버 공동체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 의식의 경우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시간을 정해 놓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인터넷 사용 시간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경우에는 인터넷 윤리의식이 매우 낮은 학생들의 비율이 초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것은 인터넷 윤리교육에 대한 접촉 기회가 적을수록 인터넷 윤리의식이 낮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